

로마서 묵상 10  
(12/4/2020, 금)

찬양: 251(137)(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1:28-32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죄악들을 소개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 주신 메시지

인간의 상실한 마음. 28절 -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정확한 혹은 철저한 지식 안에’ 입니다. 본문의 표현은 국문 번역대로 “마음” 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싫어하매” 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금속을 시금석으로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시험해 보다가 알기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은 한 마디로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마음, 완강히 거부하고 외면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그들의 “상실한 마음” 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왜곡된 마음을 가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의 상실한 마음이 변화 받도록, 그 마음이 열리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 자신의 마음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속에 물들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은혜와 사랑을 잃어 버리고, 주를 향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흐트러 질 수도 있음을 알고 주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상실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저지르는 다양한 죄악을 소개합니다. 29-31 절 -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불의”는 말 그대로 의로운 모습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죄와 악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추악”은 ‘바르지 못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탐욕”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악의”는 ‘내면에 도사리는 악’이며, ‘자신을 선하게 할 품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악”은 악한 행동이며, “악의”는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악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시기”는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살인”까지 저지룰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과 함께, 사람을 매우 싫어하고 증오하는 정신적 살인까지 포함합니다. 바울은 발음이 비슷한 “시기(프도노스)”와 “살인(포노스)”을 연속해서 나열함으로 일종의 언어유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인간의 악한 마음이 발전됨을 암시합니다. “분쟁”은 사람과의 ‘다툼’ 혹은 ‘불화’를 의미합니다. “사기”는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속이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악독”은 어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 그 사람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는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뒤에서 몰래 악평을 일삼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방하는 자”는 뒤에서 욕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둘 다로 볼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능욕하는 자”는 ‘잔인성과 교만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이며, 심지어 ‘하나님 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허풍을 떨고 과대포장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자기도 악에 빠지고 남도 악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더 심각한 죄를 짓는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 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불효하는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 ‘이해력이 없는 자’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이웃의 사정을 몰라주는 매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배약하는 자”는 ‘약속에 충실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은 이웃과의 약속을 함부로 파기함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도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우매한 자(아쉬네토스)”와 “배약하는 자(아신데토스)”)를 연속해서 배열함으로 언어유희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정한 자”는 ‘인간을 향한 기본적인 애정이 결여된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든 부모를 버리는 자녀, 혹은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와 같은 경우입니다. “무자비한 자”는 말 그대로, 힘든 사람들을 보고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입니다.

다양한 죄의 양상을 소개한 바울은 그들의 또다른 행위와 함께 그 결과를 언급합니다. 32 절 -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사망은 근본적이며 영적인 파멸로서의 사망입니다. 롬 6:23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속에는 회개는 자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확장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짓는 다양한 죄의 모습들과 함께,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에 빠지게 함으로 다같이 패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바울이 언급한 다양한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한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죄의 모습들과 그 결과의 참혹함을 드러내면 낼수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 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지를 알려 주는 듯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나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며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2. 복음을 받아야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3. 커네티컷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나며, 이 땅의 참된 구원의 방주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